

## ‘4.11 19대 총선- 공천전쟁 본격화’

◆민주당 부천 원미읍 예비후보 여론조사... 선관위 조사 복기피

### 이사철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요청”

민주당 설훈 · 한병환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  
“신뢰성과 객관성 의심... 여론조사과정 조사 필요”  
선거철마다 유권자 표심 호도 · 혼란 초래 ‘필요악’

최근 부천지역에 4.11 총선 예비후보들마다 앞다투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역언론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표하며 “내가 우세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사철 국회의원(부천 원미읍)은 20일 오전 같은 지역에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민주당 설훈 예비후보와 한병환 예비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를 요청했다.

설훈 · 한병환 예비후보는 지난 10일과 12일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보 적합도에서 (자신들이) 가장 우세하다’며 지역 언론사와 문자메세지로 지역구민들에게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사철 의원은 유사한 시기에 동일 지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편향 질문 및 어휘 사용 행위 ▲응답 강요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른 응답 유도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왜곡이 의심된다고 판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원미구선거관위에 ▲여론조사 과정 및 자료 일체의 공정성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이사철 의원은 특히 ▲여론조사 시행 전 · 후 여론조사 기관과 각 예비후보자 간의 밀약 및 대가 수수 등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요청했으며 ▲예비후보자가

부천 원미갑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여론조사 결과 여론몰이= 이런 가운데 부천 원미갑 선거구에서도 5명(김기석, 김경현, 이상훈, 박성희, 조용익)의 민주당 예비후보가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컷오프’ 전선을 뛰어넘기 위해 자체 여론조사 등 앞세워 자신의 후보 적합도를 알리려는 유사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후보 진영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실시하는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내가 후보로 적합하고 유리하다’고 주장해서 공천심사위에서 통과한다면 누군들 못하겠는가”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선거철마다 봄철 알러지(Allergy · 두드러기)처럼 특출 튀어나오는 여론조사의 허와 실을 그동안 선거전 과정을 지켜본 유권자들의 성숙한 의식이 이제는, 어느덧,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4.11 총선을 앞두고 부천지역에

서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 예비후보들마다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후보 적합도와 지지율에서 타 후보에 비해 뒤지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고, 모두가 자신이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부천 원미읍에 출마할 모 예비후보측도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고 응답률이 매우 낮아 (1~5% 미만) 변별력이 없어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할 정도로 자체 여론조사는 의외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삼척등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도하고 혼란케 하며 ‘필요악’처럼 여겨지는 ‘여론조사의 퍼즐 풀기’에 대해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철저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대목이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eon.com

## 한병환- “설훈 후보 선거법 위반혐의 조사 의뢰” 포문

설훈- “음해성 ‘선관위 신고’ 운운에 심히 우려” 성명서

4.11 총선에 부천 원미읍으로 출마한 설훈 예비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둘러싸고 ‘검찰 조사 의뢰 vs 음해성’이라고 티격태격 날선 공방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새로운 정치 변화’를 여망하는 시대적 흐름을 도외시한 구태 정치풍조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예비후보 간 이같은 첨예한 신경전은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컷오프’ 전선을 넘어 당내 경선에 나서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부천 원미읍에는 민주당으로 후보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는 이 둘 후보 외에 김진국 · 송백석 후보가 있어 4명이 공심위 심사를 통해 ‘컷오프’를 통해 최소 2명이 사전에 탈락할 것으로 보여 돌발 경쟁이 치열하다.

#. 한병환 · 설훈 예비후보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막판까지

▶한병환 예비후보= 휴일인 지난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설훈 예비후보가 실시한 두차례의 여론조사(1월29-30일, 2월3-5일)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4항 및 5항 위반에 해당, 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포문을 열었다.

한병환 예비후보는 “설훈 예비후보가 두차례의 여론조사를 하면서 설훈 초기 두 문항에서 자신(설훈 예비후보)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물어 자신을 홍보한 후 민주당 원미읍 후보들의 이름을 나열해 후보적합도를 물었다”며 “이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와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4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설훈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표, 공직선거법 제108조 5항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병환 예비후보측은 “민주당 당원들이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적 경선과정을 거쳐서 높은 도덕성을 가진 후보가 선출될 것을 기대한다”며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한 설훈 예비후보를 원미구선거관위에 조사를 의뢰, 더이상 민주당 당원들이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당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영국 시의원과 한병환 예비후보와 후보단일화 과정도 어렵다”고 언급하며 “한병환 예비후보의 음해성 ‘선관위 신고’ 운운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설훈 예비후보는 “이번 19대 총선의 핵심은 ‘깨끗한 선거’, ‘정권 교체’ 그리고 ‘정치의 변화’라며 “하지만 일련의 선거운동 과정을 돌이켜 보면, 과거 황해했던 음해와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네거티브를 통해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한병환 예비후보의 문제제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인 조원씨엔아이(www.thenucheon.com)를 통해 선관위 신고 후 진행했

**부천시 의회사무국장에 박한권  
홍보기획관에 한창희**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2월14일자로 4급(지방서기관)으로 승진 발탁된 박한권 홍보기획관을 공식증인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했으며, 5급 전보인사로 홍보기획관에는 한창희 원미구청 공원관리과장이, 오는 12월까지 10개월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에 들어가는 허모 도시디자인과장 자리에는 안정민 오정구청 세무과장이 각각 발령받았다. 5급(사무관 · 과장) 요원으로 승진 발탁된 김용의 정책기획팀장은 원미구청 역곡1동장(직무대리)으로, 민장식 교통행정팀장은 오정구청 신홍동장(직무대리)으로 각각 발령받았다. 시는 또 2월13일자로 6급(주사) 팀장 18명을 전보 및 6명 승진을 비롯 해 7급 7명 전보 및 11명 승진, 8급 19명 전보 및 3명 승진, 6명 신규 임용, 그리고 9급 13명을 신규 임용하는 등 10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2월13일자 및 14일자 부천시 인사발령 내역 8면

## 4.11 19대 총선 - 부천4개 선거구 누가 뛰나

### 예비후보 30명 등록 - 2월20일 현재 ▶ 8면

## 부천로보파크 ‘로봇제작교육’

###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교육 기간: 2011년 9월 ~ 2012년 2월  
◆교육 내용: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으로 2008년부터 부천시 관내와 김포시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상으로 로봇제작 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과학 정보와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 각 학교별 1기수, 기수별 20명, 매주 1회 2시간씩 기수별 12주 과정 교육 진행.

◆대상 학교  
부천시- (초등학교) 복사, 부인, 부일, 부천남, 덕산, 부안, 부흥, 부천북, 부천원일, 부천중앙, 부천중앙, 심원, 창영, 소안초등학교 (중학교) 부천남, 부천동, 부천부곡, 부흥, 부천북, 수사, 중흥, 소명여자, 수주중학교. 김포시- 통진초등학교, 대곡중학교.

◆운영 결과: 총 25개교 대상 로봇제작교육을 운영해 500명 학생들 대상 교육 실시.  
◆향후 계획: 부천로보파크 정규교육 과정 신설 · 운영.

\*매주 월요일 휴관  
\*부천로보파크 홈페이지(www.robopark.org), 전화(☎070-7094-5475)



# 성주산 정상... 그곳은 아직 '금단의 땅'

## 산 정상에 군부대 막사... 시민 발길 허용 안해 성주산 정상, 부천시민들이 밟아볼 날은 언제?



△성주산 정상에 들어선 군부대 막사.

성주산은 소사구 소사본동·송내동 일원을 중심으로 시흥시 대야동으로 지류가 이어져 시흥시에 속한 소래산(해발 299.4m)과 함께 백두대간(白頭大幹)에 속하는 산이다. 성주산은 특히 원미구 원미동과 역곡동 일대에 걸쳐 있는 원미산(해발 167m)과 더불어 부천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며 4계절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친구같은 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성주산 정상은 1973년 7월 1일 부천시가 시로 승격할 이래 지금까지 시민들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는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다. 산 정상에 군부대 막사가 들어서 인근 9공수 부대와 더불어 중요한 관측 초소로 국방부에서 민간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서 성주산을 찾는 사람들은 '성주산 자락을 끼고 돌아서'라는 말을 한다. 성주산 정상에서 바라본 부천시 전경을 바라보는 기회가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성주산 정상을 밟아보지 못한 부천시민들은 그래서 궁금해 한다. "성주산 정상이 그토록 중요한 군사 요충지인가..."라고 반문하곤 한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불평의 소리도 남긴다. 지난 1월12일 부천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시민 박모씨는 '성주산의 군사철 첩거요망'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얼마전 성주산 등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주산에서 서울신대 쪽으로 내려오면서 성무정 뒷산에 웅장스러운 건축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언덕 위에 과거에 군부대가 주둔해 있었던 시설이 흉물스

럽게 그대로 있더군요. 쓰러져 가는 건축물과 철조망으로 막힌 울타리, 근무 초소등이 너무 보기가 좋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능선위 나무숲에 가려져 있다고는 하나 얼마전 개통된 부천의 돌레길 이미지를 좋지 않게 할 수 있겠더군요. 어느곳에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서 이곳에 글을 씁니다." 부천시의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다.

'집을 지키고 보호하는 산'이란 이름을 가진 성주산(聖柱山)은 원미산(隄美山)과 더불어 부천시의 대표적인 산이자,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지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로 원미산(隄美山)은 옛날 부평부 관아(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산동 소재)에 있던 동헌에서 아침 해돋이 때와 해질녘 노을질 때 바라보는 산세가 아름다워서 부평부 관아에 부임한 도호부사가 산 이름을 물었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멀리서 바라본 산모습이 아름답다'는 의미로 원미산이라고 지었다는 유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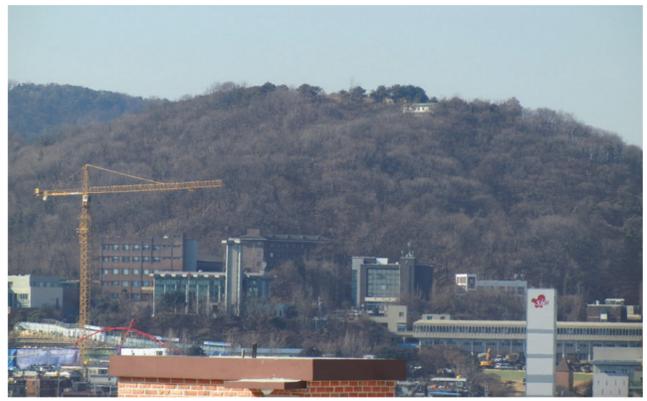
성주산과 맞닿아 있는 시흥시 소래산 정상(해발 299.4m)은 사람들의 발길이 자유롭게 이어지고 있는데 반해, 성주산 정상은 사람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는 금단의 땅으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와우산(臥牛山)'이라 불렀고, 산 골짜기는 땃골(伏谷), 산 이름은 '땃골산'이라고 불렀으며, 일제강점기인 1918년 간행된 <조선지리지자료>에는 성주산과 화오개산(華梧峴山)으로 표기돼 있다고 한다.

성주산을 중심으로 하우고개·여우고개·마리고개 등의 고개와 등전물·작은 마리골·장골·도리골·뿔골 등의 이름을 가진 골짜기, 그리고 깊은구지·술안말·구지말·소새 등의 지명을 아우르고 있으며, 마리고개 너머 술안말 쪽에 있는 산은 '거마산(巨馬山)'으로 불리우고 있다.

한편, 부천시의 성주산(聖柱山)은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면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과 성주면에 걸쳐 있는 성주산(聖柱山·해발 680m), 경북 문경시 마성면에 있는 성주산(聖



△부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폭 떨어진 가운데 파란 하늘이 펼쳐진 맑은 날씨를 보인 18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역곡2동 현대아파트에서 바라본 소사구 소사본동 일원 성주산이 눈에 잡힐 듯 한눈에 들어온다. 성주산 정상(해발 217m)에 일반 시민의 발길을 닿지 못하게 하는 군부대 막사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성주산 자락 아래 건물은 서울신학대학교 건물이다.

주변에 녹지와 계곡 등 주변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는 것이다.

까닭에 성주산 정상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 제한적으로나마 시민과 학생들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해 성주산 정상에서 부천시내 전경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본다.

물론 한걸음 더 나가 아예 성주산 정상이 활짝 개방돼 부천시민들이 원미산 정상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것이 국방부 등과 접촉해 '성주산 정상 개방'을 위한 노력을 기대해 본다.

성주산(聖柱山)은 도시화 바람이 불어닥치기 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벌박 쪽에서 소가 앉아 있는 산세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고 해서

주산·해발 712m), 전남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성주산(聖主山·해발 251m), 경북 안동시 남후면 검암리에 있는 성주산(聖柱山·해발 219m) 등 같은 이름을 가진 성주산이 4곳이 있다.

하지만 부천시의 성주산(聖柱山)은 한자로는 유일한 지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물며 이렇듯 부천시 홈페이지는 부천의 산과 하천과 관련된 자세한 소개가 아예 빠져 있거나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내년이면 시 승격 40주년, 부천시 탄생 100년이라고 하지만 부천시 스스로 지역 정체성을 찾고 홍보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하지 않겠는가.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이재진 前도의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근무 사회통합지원단 대외협력팀장 발탁... 20일부터 출근



이재진(45) 전 경기도의원이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규·장관급)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통합지원단'의 대외협력팀장으로 발탁됐다.

이재진 전 도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TheBucheon>(더부천)과의 통화에서 "16일 사회통합위원회 대외협력팀장 임명에 따른 사령장을 받았으며, 20일부터 공식 근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도의원은 앞서 사령장을 받은 날(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거리 사진과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leejaemin04·바로 가기 클릭)을 통해 "이런 아침 광화문, 세상은 분주히 그리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누구를 위해 별도로 기다려 주지도 않고 따로 났도 따로 주여지지 않는,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이기에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며, 2012.2.16도 그렇게 시작됐고,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기도 하다. 모두들 기본종은 하루였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 전 도의원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라는 알듯 모를듯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올리자 지인들의 반응도 즉각 나왔다. 댓글을 통해 "무슨 좋은 일이 있는거냐",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다" 등의 반응과 더

불어 심지어는 "이번에 새누리당으로 비공개 공개 신청을 했나?"라는 질문을 던지는 등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기도 했다.

때마침 전날(15일)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후보자 신청 마감일이어서, 부천에서 활동해야 할 그가 이른 서울 광화문 거리의 사진과 함께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에 혹시 비공개 공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이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이재진 전 도의원이 근무하게 될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www.hamonykorea.go.kr)는 사회각계각층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같은해 12월23일 공식 출범했으며, 임기 1년의 장관급으로 초대 위원장은 서울시장과 국무총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고건(72) 전 총리가 맡았으며, 지난해 12

월 제2기 위원장에는 송선구(72) 가천의과대학 총장이 맡아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주요 업무는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사회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 △계층 등 경제적 지위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 △이념 등 가치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 △지역 간의 갈등 해소 △세대, 성(性), 인종, 다문화 간의 갈등 해소 △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 활성화 △사회통합에 대한 조사·연구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 및 실무적인 사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사회통합지원단'은 단장을 비롯해, 전문위원실(전문위원 3인), 기획총괄팀, 계층분과팀, 이념분과팀, 지역분과팀, 세대분과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을 두고 있다.

이재진 전 도의원은 이번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사회통합단 대외협력팀장을 맡았으며, 20일부터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번지(신문로1가 116번지) S-타워 7층에 있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재진 전 경기도의원(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사회통합지원단 대외협력팀장)= 1967년생으로 부천남초, 부천중, 부천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학사장교(중령)로 전역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남부천 청년회의소(JC) 회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부천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위원, 소사구 노인복지관 운영위원, 부천벤처클러스터협의회 위원, 부천생활협동조합 이사, 부천지역정보센터 이사, 부천시 노사정실무협의회의 위원장, 부천리틀야구단 단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사지구당 청년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에 입문해서는 김문수 국회의원(현 경기지사) 정책 보좌관, 제4대 부천시의원(2002년 7월~2006년 6월)을 지내고 2006년 7월 제16대 경기도의원(부천 제5선거구)으로 당선돼 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다가 2010년 6.2 지방선거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부천시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그해 3월16일 도의원을 사퇴하고 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며, 다가오는 4.11 19대 총선 출마 여부에도 지역정가의 적지않은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the Bucheon** **더부천신문사**

우 420-101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88-48번지 2층  
 홈페이지 www.thebucheon.com  
 광고신청·문의 ☎032-329-2313 FAX 032-329-2314  
 E-mail: storm@thebucheon.com

발행인 許玉粉 편집인 姜泳百 인쇄인 이승철 편집국장 姜泳百

무가 발행 부천시 전지역 배포 (격주간 발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8년 9월23일 경기 다 01096

※天子峰 산기슭에서 자라는 장수약 도라지 농원 방문을 환영하며 희망하시는 분은 안내해드립니다.

찬바람이 불면 "목에는 도라지다"

# 장수樂 도라지

왜 장수樂 도라지인가?

- ▶ 예로부터 목에는 따라올 것이 없다고 알려진 것이 도라지다.
- ▶ 도라지가 좋은 이유는 차가운 바람으로 얼어붙은 한겨울에도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을 지키는 도라지의 힘 때문이다.
- ▶ 오래 묵은 도라지는 산삼에 버금가는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목이 불편하세요? 그럼 도라지진액을 권해드립니다.

- ☑ 목을 많이 쓰시는 분(교사, 종교인, 방송인, 상담원 등)
- ☑ 기관지가 좋지 않으신 분
- ☑ 호흡이 불편하거나 기력이 없으신 분
- ☑ 먼지로 인하여 목이 자주 아프신 분
- ☑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
- ☑ 오래 동안 감기로 기침을 자주하시는 분
- ☑ 목에 가래가 달라 붙어 있어 기침이 잦으신 분

서울본사 주문안내 : 02)8484-114  
 경남사무소 주문안내 : 055)5522-114  
 서울 약령시장 전시장 : 02)9227-114

**DJM 장수약도라지**



### 김문수 지사, 터키·독일·영국 방문

#### 경기도119, 4만곳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무료 보급 전기·가스·보일러 점검·정비 등



경기도가 재난취약계층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도내 구축구석구석으로 119 안전 지원의 손길을 뻗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3만5천곳과 소방 안전에 취약한 연면

적 400㎡ 미만의 영세사업장 5천곳 등 총 4만곳을 대상으로 전기·가스 및 보일러 설비 무료 안전점검·정비사업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순회 건강돌봄봉사 등 다양한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최근 경기집체의 영향으로 저소득 재난취약가구의 주거환경과 영세사업자의 작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따른 조치로, 현재 각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119 서민생활 안전지원단 사업'을 '재난취약계층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34개 소방서의 119생활안전단과 의용소방대원 등 각종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전기, 가스, 보일러 등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들의 신청을 받아 이들이 직접 재난취약대상을 찾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기존 전기·가스 등 시설정비 위주에서 소방시설 설치, 건강 체크 등 생활봉사 분야까지 안전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매주 토요일 'KTX 타고 떠나는 DMZ 투어'

### 경기관광공사, 25일부터 '당일코스 여행' 작년 2천653명... 매년 2배 가량 늘어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황준기는 오는 25일부터 경기도 대표 철도여행상품인 'KTX 타고 떠나는 DMZ 투어(이하 'KTX-DMZ 투어')를 운영하기 위해 본격적인 상품 판매에 들어갔다.

'KTX-DMZ 투어'는 2009년 8월 경기도-코레일 업무협정체결 기념으로 개발된 상품으로, 지난 3년간 경기관광공사, 파주시, 코레일관광개발이 협력해 함께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작년 한해에만 총 2천653명의 지방 관광객이 DMZ를 다녀갔다.

DMZ(비무장지대) 일대 관광은 그동안 복잡한 출입 절차와 최북단 위치라는 거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방에서 관광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KTX-DMZ 투어'라는 당일 코스 기차 여행이 출시되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비무장지대를 관광할 수 있게 됐다. 출시 후 매년 180% 이상 이용객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KTX-DMZ 투어'는 실제로 이용객들의 참가 만족도와 입소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TX를 타고 출발해 용산역 또는 서울역에 도착 후 연계버스를 이용해 임진각으로 이동한 뒤, 간단한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출입 절차를 마치고 DMZ로 들어가게 된다.

'통일촌 마을'에서 장단콩 된장찌개 백반이 점심으로 제공되며, 이어 DMZ 안보 체험관광의 핵심 코스인 '제3땅굴~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특히 '제3땅굴'을 지하 73m 깊이까지 직접 도보로 다녀오게 된다.

또한 서부전선 최북단 관측소(OP)인 '도라전망대'(해발 156m)에 오르면, 개성공단과 북한 선전마을(기정동)을 육안이나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으며, 날씨가 맑은 날이면 송악산과 개성시내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다.

'도라산역'은 경의선 남측 최북단 역으로, 2002년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이 함께 철도 침묵에 서명하는 행사를 갖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6.25때 신의주로 향하던 도중 폭탄을 맞아 그 자리에 멈춰서 있던 증기기관차 화통을 옮겨와 전시한 '장단역 증기기관차'도 인기가 높다.

'KTX-DMZ 투어' 상품 가격은 광주 출발일 경우 성인 7만9천원, 아동 6만2천900원으로 KTX 왕복 운임비, 연계버스비, 중식, DMZ입장료, 여행자보험 등 여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가 추가 부담없이 떠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특히, '놀토'에만 운영하던 것을 주5일 수업제를 맞아 '매주 토요일' 출발로 확대, 참가자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금년 중 흥남선은 목표까지 출발예를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경기관광공사 황준기 사장은 "세계 유일의 DMZ를 KTX로 하루만에 다녀갈 수 있는 관광상품은 경기도에만 있다"며 "올해는 주5일 수업제로 늘어난 주말 가족여행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특화상품을 보다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KTX 타고 떠나는 DMZ 투어'는 현재 코레일 여행센터(광주역 ☎062-605-2149, 익산역 ☎063-855-7715, 부산역 ☎051-440-2513, 신경주역 ☎054-743-4884, 동대구역 ☎063-940-2223), 코레일관광개발(대표전화 1544-7755, 익산지사 ☎063-852-7789, 부산지사 ☎051-466-8122)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www.korailtravel.com)으로 예약할 수 있다.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buccheon.com

###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허용해야"

#### 경기도, "세입자 참여권 보장"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단지

의 세입자 거주비율은 42%(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에 이르지만 현행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관리비는 주택소유자와 똑같이 내지만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세입자를 제외시킨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세

입자 참여 비율은 각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달했다"며 "재산 처분, 리모델링 등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의결권은 제한할 문제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의 내용에 대해 소유자의 권익보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뉴타운 주민 의견 66개 구역 중 45개 구역 반대 17일 뉴타운 주민의견 투표 결과 발표 도, "추진 원하는 곳 최대 지원 해제 원하는 곳 신속 해제" 밝혀

경기도내 뉴타운 사업 추진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결과, 전체 조사대상 10개시 66개 구역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45개 구역의 주민 25%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8일 이같은 주민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된 주민 의견을 토대로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은 최대한 지원하고, 해제를 원하는 곳은 신속하게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17일까지 진행됐으며, 투표

결과 고양시 원당3구역과 부천시 소사본83구역 등 21개 구역의 반대표가 25% 미만으로 조사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고양 능 7구역을 비롯한 45개 구역의 반대표가 25%이상을 기록해 사업 추진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로써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10개시 17개 지구 166개 구역에서 9개시 15개 지구 120개 구역으로 축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투표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전문

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용적률, 소형주택 비율, 기반시설 부담률, 임대주택 비율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반대로 조사된 구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촉진계획변경을 통해 뉴타운사업 지구로 해제할 방침이다.

도는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주택 보수가 개량사업을 할 경우 공공에서 기반 시설을 지원하도록 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새로운 정비방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성김 주한미국대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예방



△지난 9일 오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 방문한 성김 주한 미국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성김 주한미국대사가 부일 인사차 지난 9일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한국대사 부임을 환영

한다"며 인사를 건네고 "스티븐스 대사 때와 마찬가지로 성김 대사님 역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좋아하고, 한미 관계가 더욱 좋아질 뿐 아니라

한미가 하나된 일심동체 기반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다. 훌륭한 한미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해주신 오바마 대통령과 미의회가 탁월한 선견을 갖고 대사님을 선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성김 대사는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주한 미대사로 근무하게 된 건 큰 영광이며, 지사님은 물론 국민들의 환대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성김 대사는 "저 역시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장관께서 이런 역할을 주신데 감사드린다"며 "제가 서울 이외 지역 방문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지사님은 국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훌륭한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사님을 공무원 상대로 강연을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못했다. 다음엔 강연에 초청하고 싶다"고 하자, 성김 대사도 "저 역시 기회가 된다면 그러길 원한다. 제가 누구 대상으로 강연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지금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것이다. 특히 동두천 의정부

지역 개발 차원에서 동두천 의정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체적 방어 차원에서 미군이 평택으로 옮기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안전 문제에서) 조금 걱정도 하고 있다. 북부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김 대사는 "제가 예전 대사관에서 한미동맹을 위해 기지 재배치를 다루는 직접적인 일도 했었다. 예를 들면 연합 토지관리계획이나 용산 재배치 등에 직접 관련했었다. 당시 가장 염두에 뒀던 게 전쟁 역지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며 "주한미군 기지를 통합하고 기지로 허브로 만드는 게 방어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서면 사령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한미 FTA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다"고 하자 성김 대사는 "FTA 관련해서 양국이 이익이 되는 좋은 협정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이런 점에서 한미 당사자들 높게 평가한다.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양측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보는

**- 더부천 -**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cheon.com**

www.buccheonin.com / www.buccheon.me

'인터넷 더부천'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깔끔하고 절제된 고품격 온라인 뉴스서비스  
더 새롭게 더 정확하고 더 세련되고  
더 빠르고 더 강해졌습니다!

**The** 성장하고 **The** 사랑받는 **The** 부천이 되겠습니다.

부천의 참언론- 더부천 www.thebuccheon.com

기사 제보·광고문의 : ☎(032)329-2313 / FAX (032)329-2314  
e-메일 : storm@thebuccheon.com / 010web@naver.com

# ‘부천시민대학’ 3월 개강... 1학기 참가자 모집

오는 24일까지... 올해부터 ‘학기제’ 운영  
3개 과정별로 30명씩 총 90명 모집

15주 45시간 3학점 과정으로 진행  
부천시는 시민교육과정의 최고 과정인 ‘부천시민대학’ 2012년 1학기 개강을 앞두고 3개 과정에 대한 학습자를 오는 2월24일까지 모집한다.  
‘부천시민대학’은 시민지도자 양성과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시민의 성장과 성장을 돕기 위한 심화교육과정으로 지난해 9월 2개 과정으로 문을 열었으며, 올해부터는 1학기 과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학기제’ 운영에 들어간다.  
부천시민대학 1학기 과정은 사회적 변화와 흐름을 읽어 관점을 정립해 적극 대처하는 시민의 책무성 강화와 자지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인문학을 중심으로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제1과정은 ‘마음의 발견, 삶의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3월6일부터 6월1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강의는 김찬

호 교수(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 외래교수, 사회학 박사)가 맡는다. 제2과정은 ‘조선 후기 지식사 산책: 연암과 그의 시대’라는 주제로 3월9일부터 6월1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강의는 문성환 교수(남산 강학원 연구원, 국어국문학 박사)교수가 맡는다.  
또 새롭게 추가된 제3과정은 ‘문화와 예술로 읽는 한국사’라는 주제로 3월8일부터 6월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강의는 박한용 교수(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 교수, 한국사 박사과정 수료)가 맡는다.  
3개 과정의 수강생은 각 과정당 30명을 모집하고 모집기간 중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습자의 지역활동 경력과 교육 참여 내용, 참여 동기 및 의지 등을 확인해 선발하게 된다.  
이는 사전 학습과 과제 수행 등 보다 심도있는

학습 참여도를 요구하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해 무엇보다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지닌 자기주도적인 학습자를 우선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부천시민대학’에 참여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부천시 평생 학습 센터 홈페이지(learning.bucheon.go.kr)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방문 및 부천시평생학습센터(☎032-625-2853), 이메일(wjy7707@korea.kr)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교재비 및 교육과정 운영비는 각자 부담하면 된다. 학기제 운영에 따라 1학기 15주 45시간 3학점 과정으로 운영되고, 추후 학점 은행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기마다 입학식과 졸업식을 실시한다.

시 교육청소녀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참여 신청 시작 2일 만에 모든 교육과정이 마감될 정도로 부천시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가 높았던 만큼 이번 교육과정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

# 부천시, 시승격 40주년 슬로건 공모

3월15일까지... 시민 누구나 참여  
최우수 100만원 · 우수 50만원 시상

부천시는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2013년 부천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슬로건’을 공모한다.  
슬로건의 내용은 부천의 역동성과 새로운 부천시대를 맞이하는 의미와 미래상이 담기고,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1인당 2개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부천시는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2013년 부천시 탄생 100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슬로건’을 공모한다. (www.bucheon.go.kr)에 접속해 ‘시정소식→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3월15일까지 부천시청 8층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625-2301~3)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또는 이메일(kyt2102@korea.kr), 팩스(☎032-625-2307)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시는 외부전문가, 대학교수 등 5명 응모는 시 청 홈페이지

www.bucheon.go.kr)에 접속해 ‘시정소식→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3월15일까지 부천시청 8층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625-2301~3)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420-736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또는 이메일(kyt2102@korea.kr), 팩스(☎032-625-2307)를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시는 외부전문가, 대학교수 등 5명 응모는 시 청 홈페이지

통해 최우수 1편, 우수 1편, 장려 2편을 선정해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시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심사 발표는 3~4월중 수상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시승격 40주년 준비사업단은 “슬로건을 통해 부천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천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기대한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32)625-2303.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nucheon.com

# SSM 영업 제한 · 의무 휴업일 지정 관련

부천시 조례개정 추진... 의견 수렴나서

부천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부천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시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조례 개정을 위해 대형마트, 소상공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히,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 만큼,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 일반 시민, 유통상생발 전협의회 등과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지역에는 현재 인근 도시에 비해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16곳 등 비교적 많은 점포가 영업중에 있는 점을 감안해 대형마트와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은 물론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032)625-2702

## ◆자동차 선납제도... 이용률 크게 늘어

# 부천시, 2012년분 경기도내 1위

경기도, 1년분 2천223억원 징수  
부천 203억원 · 수원 179억원 순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의 2012년 1년분 선납액은 203억원으로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2년도 자동차세 1년분 선납액은 2011년보다 4.5% 증가한 78만9

천대에 2천223억원이 징수됐다. 2010년 대비 2011년의 선납액 증가율은 30.5%였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1년분 자동차세 선납시 적용되는 할인율 10%는 보통 4%인 시증정기예금 실질금리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며 “2011년 이후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군별로는 부천시(203억원), 수원시(179억원), 용인시(145억원), 성남시(114억원) 순으로 차량 등록대수가 많고 도시화가 높은 지역의 자동차세 선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이 폐차·매매하는 경우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변동일 이후 선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자동차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의 1월 선납시 혜택은 10%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천시민과 정직한 소통- 인터넷 더부천 www.thebucheon.com

# 부천시, 결혼이민자 한글교육 전담기관 운영

원미구 2곳, 소사구와 오정구 각 1곳  
언어적 소통 해소 등 사회 적응 교육

부천시가 결혼이민자들의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전담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15일 시 가족여성과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에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4천700여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초기에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가족과의 갈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통한 사회응용 향상을 위해 ‘한국어 교육 전담기관’을

원미구에 2곳, 소사구에 1곳, 오정구에 1곳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원미구는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032-320-6391)와 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02-2164-4398), 소사구는 부천시 심곡복지회관(☎032-665-6061), 오정구는 부천시 노동복지회관(☎032-679-2900)이 각각 선정됐다.  
이들 4곳의 ‘한국어 교육 전담기관’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교육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기초, 초급, 중급, 고급반 과정을 운영하고, 보다 편안한

수업 환경을 위해 한국어교실 참여자와 동반하는 자녀들을 위해 놀이방 운영 및 아이 돌보미도 제공한다.

또 은행, 관공서, 병원 이용하기, 시장보기, 지역탐방 등 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한국어 교육 전담기관’에서는 오는 3월 개강을 앞두고 한국어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시 가족여성과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향상돼 국내 조기 정착과 다문화가족구성원간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한국인으로서 자존감을 높여 행복한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오정구, 구정업무 ‘사전 알림제’ 운영

직원용 우수시책 공유 웹사이트 개설

오정구(구청장 배효원)는 주민들이 구정 업무를 손쉽게 접하는 ‘구정업무 사전 알림제’를 운영하는 한편, 직원들에게는 전국의 우수 시책을 안내하는 ‘블링블링 우수시책 공유’ 코너를 운영하기로 했다.

오정구에 따르면 ‘구정업무 사전 알림제’는 오는 24일 구청 홈페이지(ojeong.bucheon.go.kr)에 개설, 구정 연간 주요업무계획, 주간 및 월간 업무보고, 간부회의 자료 등 주요 시책 등을 공개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받는 소통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새로운 시책 발굴이 필요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증된 우수 시책을 수집해 전직원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블링블링 우수시책 공유’ 코너를 개설해 16일부터 제공해 지역여건에 맞게 접목시켜 나가도록 했다.

구는 발품꾼 우수 시책들은 수정과 보완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시책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원미구, QR코드로 다양한 정보 신속 제공

원미구(구청장 이해양)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맞춰 각종 홍보물과 시설물에 QR코드를 활용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QR코드는 상품의 각종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로 표시된 그림상자로, 스마트폰을 대면 모바일 웹페이지와 연결돼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고비용을 들여서 제작하는 지면 홍보물 대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행사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미구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방세 세목 안내와 납부방법, 각종 인허가 사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시민정보화교육 안내 등 시민들에게 알리야 할 다양한 정보를 QR코드와 트위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구는 특히 지역축제 통합 모바일 웹 홈페이지를 구축해 한 개의 QR코드로 다양한 축제의 개최 시기, 장소, 축제 유래 등을 제공하는 한편, 각종 사업과 공공시설물에 맞는 QR코드를 제작해 청사와 게시관, 현수막, 각종 홍보물 등에 부착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하도록 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 사 제 보**  
☎ (032)329-2313  
Fax (032)329-2314  
e-메일: storm@thebucheon.com  
www.thebucheon.com

# 소사구,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참가자 모집

오는 24일까지... 중·고생 100명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봉사활동  
부천시 소사구는 경로당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봉사활동 특화프로그램인 ‘청소년 자원봉사학교’가 호평받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참여할 중·고생 100여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봉사활동  
부천시 소사구는 경로당 어르신과 청소년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봉사활동 특화프로그램인 ‘청소년 자원봉사학교’가 호평받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 참여할 중·고생 100여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불법 광고물 정비와 도로변 청소 등 도시환경 정비를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1.3세대 간 소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7개 경로당에서 운영된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로당에는 월14만원의 사회봉사 활동비가 지급되고, 청소년들에게는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인정하

는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청소년 자원봉사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고생은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pcvolunteer.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은은 주민생활지원과(☎032-625-6372)로 하면 된다. 소사구는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오는 29일 경로당 회장단과 참가 신청을 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로당에는 월14만원의 사회봉사 활동비가 지급되고, 청소년들에게는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인정하

# 부천시, 텃밭 농사체험 230세대 모집

20~24일까지... 세대당 13.2㎡ 약 4평  
참가비 6만원... 시 청 홈페이지서 접수

부천시는 가족과 함께 텃밭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농업 체험장(시민농장) 회원’을 20일부터 24일까지 230세대를 모집한다.  
부천 관내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의로 1구 1세대(구좌) 당 13.2㎡로 신청면적은 1세대(구좌) 당 13.2㎡로 신청면적은 약 4평이다.  
도시농업체험장 장소는 원미구 춘의동 343-343-1번지 일대로 역곡 북부역에서 수주로 방향으로 2km 지점 대로변 좌측에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입구에 있는 텃밭이다.

참가비는 세대당 6만원으로 텃밭 임차료, 경운, 구획 분할, 비료, 모종, 종자 구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시는 김장재소종도 구입, 비닐 관수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참가신청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앙이벤트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인터넷 추첨 후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는 녹색농정과 자원학습팀(☎032-625-280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www.bucheon.go.kr)

리 의뢰서를 갖고 시가 지정한 보장구 수리업체인 ‘케어114’와 ‘휠로피아’ 등 2개업체를 방문해 수리받으면 된다.

시는 특히,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수리업체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장애인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수리업체를 직접 방문해 수리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사회복지과(☎032-625-2889) 또는 각종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저소득 장애인에 휠체어 수리비 지원

2월15일부터 수동 휠체어 10만원  
전동 휠체어 · 스쿠터 20만원까지

부천시는 2월15일부터 저소득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고장 또는 훼손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이들 장애인이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 및 타이어·모터·컨트롤러 등 소모품 교체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부천시에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수급자 및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된 신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다.

수동휠체어는 연 10만원까지, 전동휠체어(스쿠터)는 연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동주민센터에 수리를 신청한 후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휠체어 수

# “학교폭력, 이제 그만!”... 7대 실천 정책 발표

###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 피해학생 보호 최우선 학교폭력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 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해 인성교육 실천



△김형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김형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련 관계장관 회의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 의지에 따라 국무총리·교과부 장관, 관련 전문가·학생·교사와 30여회 간담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학교폭력 근절자문위원회’ 3회 개최 등 각계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마련했다.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성교육이 형식화된 교육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7대 실천정책을 수립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직접 대책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 정지 조치하고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피해 학생 보호와 함께 가해 학생 조사가 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5(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에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학교장은 또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원활한 운영 위해 일과 후 또는 주말에 개최), 학내 폭력 실태 점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토록 하는 한편, 경미한 폭력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기구

가 소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 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하기로 했다.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 및 생활지도 여건 조성=금년부터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 1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해야(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 활용) 하는 등 담임교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한편, 학급의 학생수가 과다한 경우 생활지도 업무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복수담임제는 올해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2013년에는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하고, 학생수 기준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기로 했다.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의 학교폭력(게임중독 등 포함)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대책2]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 신고전화(117)를 통합하고, 교과부와 여가부의 협조를 받아 경찰청이 24시간 운영하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를 광역 단위로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개소에서 17개소로 늘어 나게 된다. ▲학교폭력 은폐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그간 쉬쉬하며 감춰지던 학교폭력을 숨김없이 밝혀내고,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장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초4~고3 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피해학생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은 경찰 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하게 된다.

피해학생 또는 피해 학생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상담학교 진학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때 피해학생은 정상적으로 배정된 후, 가해학생은 추후 별도 배정기로 했다.

피해학생들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고 치료비 보상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가해학생-피해학생 학부모간 분쟁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선)치료지원-후(후)처리시스템’도 마련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가해학생 측의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를 위한 상담·의료비를 우선 부담한 후 가해 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일진 등 학교폭력 서류업정 대응=앞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기초로 포착이 어려운 일진회의 존재 여부를 주기적으로 탐색·대응하는 ‘일진 경보제’를 도입하고, 일진회 문제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해 발본색원 할 방침이다.

■[직접 대책3] 포괄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건전한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포괄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2012년중 시범기간을 거쳐 2013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학교폭력의 출발점이 되는 학생간 갈등을 대화, 토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교과교육)을 통해 학습할 것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연계해 포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계획에 의한 학생 포괄활동, 자치법정 등 자율활동 관련 내용은 학생부 특기사항 및 에듀팟에 기록한다

■[직접 대책4]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정확하게 이해하

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는 인식하에, 그간 교육청·학교로 찾아오는 학부모에 한정하던 학부모 교육의 대상을 ‘모든 학부모’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학부모 교육의 공간을 직장, 민간단체 등 교육청·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한편, 시간적 제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 포털(www.parents.go.k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근본 대책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대책이 수립·시행됐음에도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하게 양산되고 이유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의 실천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을 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에서 해야 할 인성교육의 핵심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생활교육-교과교육-체험활동 등 학교생활 전 영역에 걸쳐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했다. 또한, 인성교육이 단지 교육의 수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의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인성을 핵심적 인 평가요소로 반영해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인성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인성 관련 학생부 기재 강화 및 입학전형에 반영=학생 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별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에 반영한다. 입학사정관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항목을 신설하여 자기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인성분야를 신설해 평가의 핵심요소로 활용하도록 계획이다.

■[근본 대책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학교폭력 해결을 학교에만 집중한 탓이 크다는 인식하에, 가정과 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키우고,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식개선을 위한

## 월요 시론 - ‘연민으로 보던 이주노동자’

### “지금까지 기성세대는 ‘돈’에만 매달려 살아 젊은이들이 꿈 꾸지 못하는 현실 안타까워 뒤늦게 꿈과 희망의 시스템 ‘협동조합’ 만나”



한혜석  
안골보리대표  
pipis@dreamwiz.com  
개인홈페이지  
www.pipis.co.kr

“이제 아빠는 그 이주노동자야”라고 말하는 우리 아이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칫하면 우리 아이들 미래도 이주노동자 신세. 최근에 지인들과 만나 저녁밥을 먹었다.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다가 내 차례가 되어 말을 꺼내는데, 민망하게도 눈물이 쏟아졌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고 말하는 대목에서 목이 메었다. 나이 10년 뒤, 20년 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니 지금 구태

여 꿈을 꾸지 않아도 된다. 우리 젊은 시절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꿈꿀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5년 뒤, 10년 뒤를 알 수 없어 불안해 한다. 동석한 분이 자기가 기성세대를 탓하며 살았는데, 어느새 이런 세상을 물려주는 기성세대가 됐다고 했다. 그 말이 또 가슴을 후벼팠다. 미안했다. 우리 후손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다. 그래서 눈물이 나왔다.

언젠가 얼핏 김기대 님이 삼삼 패악과 재벌 감싸는 정부를 비판하며, 젊은이 꿈을 빼앗은 죄가 가장 크다고 지적하는 글을 읽을 때도 컴퓨터 앞에서 혼자 울고 또 울었다. 지금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자’가 되어 이 지독한 현실에서 자녀가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두 진실을 외면하고 ‘돈’에만 매달려 살았다. 지금까지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다.

내가 요즘 뒤늦게 협동조합을 만났다. 힘없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상상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꿈꿀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나기 때문이다.

희망이 있으면 지금 어려움도, 패악도, 무능도 이겨낼 힘이 생긴다. 협동조합이 꿈이고, 희망이다.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을 위해 ‘밤상머리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가족사랑의 날’인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해 가족이 함께 식사와 대화를 나누며 기본예절교육, 부모-자녀와 의 상호이해 시간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청, 학교, 시민단체 등이 밤상머리교육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범부처적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근본 대책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오인 대책=인터넷과 게임 등을 통해 폭력적 유희영상을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무뎠고 있음에도, 그간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경제적·산업적 관점을 중시하고 교육적 시각에서 심의·규제 및 유해성을 자율 자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영상매체(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등)의 학교폭력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영향력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3.7%(‘매우 영향 있음’+‘영향 있음’)에 달했다.

게임·인터넷의 가상현실 속 잔혹성이 학생들의 폭력성을 부추기지 않고, 게임·인터넷 중독으로 정신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예방교육 및 치유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부모명의 대응방지를 위해 아이핀 사용 확대 등 청소년에

대한 게임제공 제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플링 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진하고(10분 후 1회에 한해 재접속을 가능하게 하고, 게임 시작 후 1시간 경과하면 주기적으로 주의경고문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 병행),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의 진행수준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법령 위반 업주의 법적규정을 강화하고, 경

찰청과 합동단속을 강력하게 추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의 7대 실천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사회와 가정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기존의 교과부 산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개편했다.

또한,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 지역대책위원회’를 신설해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청 등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 이다.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nucheon.com

## 부천경찰, 부천교육지원청과 학교폭력 공동 대처 관내 3개 경찰서-교육청 공조체제 구축키로

부천소사경찰서(서장 조항진)와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재)은 최근 양기관 과장급 이상 간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은재 교육장은 1학기에 20~2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두차례 실시하고 경찰서장과 교육장 명의의 교육 이수증을 수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항진 서장(총경)은 관내 원미

·소사·오정 3개 경찰서장과 교육장 및 담당자가 참석하는 연석 회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이번 기회를 ‘타일 포인트(전환점)’로 삼아 경찰과 교육계가 합심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부천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천 관내 3개 경찰서와 부천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및 대응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에듀 www.hanibook.co.kr 02-6383-1602~3  
\*한겨레에듀는 한겨레출판(주)의 교육출판 브랜드입니다

# 논술, 1주일이면 된다!



## 논술 준비,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요?

논술 시험은 몇몇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지, 백일장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즉, 그 3 수험생이 공교육에서 제대로 배운 뒤, 논술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켜 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글솜씨를 타고나지 않아도 기준에 맞추어 익히면 해결할 수 있지요.

## 정말 1주일이면 논술을 끝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인 논술 지침서와는 달리 글쓰기 단계를 매우 상세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쓰기에 전혀 자신 없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학부모, 입사 시험 준비생, 글쓰기 지도교사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글쓰기에 자신감이 붙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범 답안 1권을 포함, 총4권 1세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 책 3권을 각각 이틀에 한 권씩 때려 나간다면 6일만 해도 논술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논술 핵심판(전4권)  
제1권 논술 문장개요 짜기 | 제2권 단락 쓰기와 요약하기 | 제3권 글쓰기 실천과 평가하기 | 제4권 모범 답안  
한글서 지음 | 총 648쪽 | 25,000원

## 주제로 익히고 유형으로 다지는 실전 논술의 길잡이



핵심 주제, 교과서 개념, 관련 자료, 예상 논제로 이어지는 시스템 학습!

통합논술 교과서

- 1 실과 철학
- 2 사회와 문화
- 3 경제와 과학

전홍식·김수연·김정석 공저  
각 권 18,000원



실제 논술 시험의 모든 유형과 해결 방안이 한 권에!

25가지 문제 유형으로 보는 유형별 논술 교과서  
전홍식·김수연·김정석 공저  
22,000원

# 부천시, 재외국민 인감증명서 허위발급 수사 의뢰

### 재미교포 유모씨, 회사 재직 여직원 동행 美체류 부인 인감증명서 허위 발급... 왜? 서울 소재 모저축은행서 150억 불법 대출 이해관계인 뒤늦게 진정... 경찰 수사 착수

부천시 원미구 상동주민센터에서 2년 3개월 전에 인감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부천시가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천시 상동주민센터와 부천원미경찰서, 진정을 제기한 이해관계인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포이동에 소재한 모저축은행을 운영하는 재미교포로 알려진 유모씨가 지난 2009년 10월 26일 자신의 회사에 재직하던 여직원 김모씨(갑사 직책, 현재 퇴사 부천시 원미동 거주)와 함께 상동 주민센터를 방문, 유씨의 부인 김모씨(미국 거주 재외국민)의 재외국민증을 제시하고 김씨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가 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허위 발급 당시 상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유씨와 동행한 여직원 김씨를 부인인 것처럼 속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유씨의 부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에 대해 남편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위임장으로도 발급받지 못하도록 조치해 온데다, 2009년 10월 26일 인감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은 당시 유씨의 부

인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동주민센터에서는 그 연유가 어찌됐든간에 유씨와 동행한 여직원 김씨에게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는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같은 인감증명서 허위 발급 사실은 유씨가 부인 명의로 허위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2009년 11월 6일 서울 소재 M저축은행 S지점에서 15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M저축은행 S지점에서 150억원을 대출해줄 당시 유씨의 부인이 자서(自書)를 한 것처럼 한 뒤 대출받았으나 그 당시 유씨의 부인은 국내에 있지 않고 미국에 체류중이었다는 것이다.

유씨의 이같은 인감증명서 허위 발급과 15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은 국내 대기업의 계열사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소재 물류창고 부지인 9천400평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땅을 매입했다가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자격이 상실된 이해관계인이 올해 1월초에 경기도 감사관실에 상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것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시키면서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경기도 감사실은 이같은 진정서를 접수받고 부천시에 통보했고 자체 조사를 통해 상동주민센터에서 유씨 부인의 인감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월 12일 관할 경찰서인 부천원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시에서 수사를 의뢰해오에 따라 1월 30일 유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유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의 부인 실제 거주지(경남 사천)로 이송 요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경남사천경찰서로 이송했으나, 경남사천경찰서에서 1월 31일자로 다시 부천원미경찰서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과정에서 재미교포로 알려진 유씨가 상동 주민센터에서 누구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해 놓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회사 여직원(현재 퇴사, 당시 직책 갑사)과 동행, 인감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것과 관련, 경찰의 본격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상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경위 등이 밝혀질 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경기도에 진정서를 접수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은 부천시의 모 지역언론에서 이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씨와 알고 지내는 부천시원의원이 설명절 직전에 기

사화 하려는 것을 무마하려고 했던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이해관계인은 전해 왔다.

실제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취재를 했던 모 지역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부천시의원이 유씨가 인감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것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어떤 이유로 기사화 하려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나섰는지 등에 대한 배경에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등 유씨의 인감증명서 허위 발급에 따른 미스픽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유씨의 인감증명서 허위 발급 사실을 경기도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접수한 이해관계인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공문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미교포인 유씨가 부인과 이같은 인감증명서 허위 발급 사실을 함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허위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로 불법 대출을 받아 물류창고 부지를 매입해 물류창고를 짓고 분양하는 일련 과정 등으로 인한 또다른 피해를 막고, 공공기관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진정서를 넣게 됐다"고 말했다.

/강영백 기자  
storm@thebucheon.com

# 김관수 시의회 의장, 박사모 썼다

### 단국대 대학원서 행정학 박사학위 독학으로 '만학도의 꿈' 실현 화제



김관수(56) 부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의장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까지 받아 '늦깎이 만학도의 꿈'을 실현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14살 때부터 가구공장에서 목공일을 배우며 생활하

면서 목공기계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아픔과 결핵과 위염과도 싸워야 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지만 주경야독으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방통대 부천학생회장을 맡아 부천시 방통대 학생들을 위한 학습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고마움을 드리며, 부천시민을 위한 마중물로서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선을 위해 봉사할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수 의장은 특히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교 과정을 마친 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 학사학위를 받고 단국대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까지 받아 '늦깎이 만학도의 꿈'을 실현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14살 때부터 가구공장에서 목공일을 배우며 생활하

면서 목공기계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아픔과 결핵과 위염과도 싸워야 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지만 주경야독으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쳤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방통대 부천학생회장을 맡아 부천시 방통대 학생들을 위한 학습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부천시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고마움을 드리며, 부천시민을 위한 마중물로서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더불어 공동선을 위해 봉사할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수 의장은 특히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교 과정을 마친 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해 학사학위를 받고 단국대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까지 받아 '늦깎이 만학도의 꿈'을 실현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14살 때부터 가구공장에서 목공일을 배우며 생활하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nucheon.com

## ■ TheBuchon / 포토 에세이

# 반갑다!... '추억의 국화빵'

요즘은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겨울 길거리 먹거리' 홀플러스 상동점 부근서 모처럼 만난 반가움이란...



△국화빵틀에 붓는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팔 반죽을 조금



△노릇노릇 익어가는 국화빵.

△국화빵틀에 붓는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팔 반죽을 조금 때 넣어서 익히면 국화빵이 탄생한다.

지금은 아스라한 추억이 됐지만, 요즘도 길거리 노점에서 흔히 맛볼 수 있는 '붕어빵'과 함께 추운 겨울을 바를 다음 전주에서 담은 묽은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팔 반죽을 조금씩 때어 넣고 익힌 뒤 한번 뒤집어서 앞뒤로 노릇노릇 익히면 금세 맛있는 '국화빵'이 탄생합니다.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국화빵'을 만든다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빵틀에 기름솔로 기름을 바른 다음 전주에서 담은 묽은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팔 반죽을 조금씩 때어 넣고 익힌 뒤 한번 뒤집어서 앞뒤로 노릇노릇 익히면 금세 맛있는 '국화빵'이 탄생합니다.

그 옛날 길거리에서 '국화빵'을 파는 수레는 만나면 잠시나마 추위를 녹이면서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종이 봉지에 가득 담아 주며 먹던 '국화빵'의 단맛이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 닳기 때문입니다. 다섯개에 천원하는 '국화빵'을 사서 따뜻한 온기가 도는 종이 봉다리(종이 봉투의 사투리)에서 꺼내 먹으면 그 맛은 오래 전에 먹었던 '국화빵'의 오래전에 먹었던 맛

그대로 었습니다.

'국화빵'을 만드는 과정을 아주 간단합니다. 빵틀에 기름솔로 기름을 바른 다음 전주에서 담은 묽은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팔 반죽을 조금씩 때어 넣고 익힌 뒤 한번 뒤집어서 앞뒤로 노릇노릇 익히면 금세 맛있는 '국화빵'이 탄생합니다.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국화빵'을 만든다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빵틀에 기름솔로 기름을 바른 다음 전주에서 담은 묽은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팔 반죽을 조금씩 때어 넣고 익힌 뒤 한번 뒤집어서 앞뒤로 노릇노릇 익히면 금세 맛있는 '국화빵'이 탄생합니다.

그 옛날 길거리에서 '국화빵'을 파는 수레는 만나면 잠시나마 추위를 녹이면서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종이 봉지에 가득 담아 주며 먹던 '국화빵'의 단맛이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 닳기 때문입니다. 다섯개에 천원하는 '국화빵'을 사서 따뜻한 온기가 도는 종이 봉다리(종이 봉투의 사투리)에서 꺼내 먹으면 그 맛은 오래 전에 먹었던 '국화빵'의 오래전에 먹었던 맛

/강영백 편집국장 storm@thebucheon.com

## ◆ 2012년도 부천시 노인 일자리사업

# 69개 사업에 2월24일까지 참여자 모집

### 관내 9개 수행기관서 방문 접수받아 복지형·공익형·교육형·시장형 인력 파견형 등 다양한 사업 펼쳐

부천시는 어르신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게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어르신들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부천 관내 9개 수행기관에서 복지형, 공익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의 사업으로 나눠 총 69개의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참여 자격은 만 65세이상(일부 60세 가능)으로 주민등록상 부천시에 거주하면 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와 정부 관할 부처에서 추진중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제한된다.

참가 신청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사진 1매를 지참해 9개 수행기관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별 기관 1개 사업 이상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중복 지원 확인시 모든 기관의 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노인 일자리사업에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7개월간 월 36시간에서 42시간 동안 근무하고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추진하는 9개 수행기관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미구 취업지원센터(☎032-613-1666) = △복지형: 경로당도우미(경로당 내 거동 불편 노인 수발), 실버요양보호사(거동 불편 요보호노인 요양서비스 제공) △교육형: 실버강사(레크리에이션, 컴퓨터교육, 경로당 회계장부 관리법 교육 등의 학습지도 강사 파견) △인력 파견형: 실버지킴이(경비 및 미화원 취업 알선) 등 4개 사업.
- ◆소사구 취업지원센터(☎032-351-1918) = △복지형: 경로당 도우미(경로당 내 거동 불편 노인 수발) △교육형: 숲해설 지원사업(부천시물원내 어린이와 일반인 대상 숲해설) △공익형: 교통안전 지킴이(등하교길 안전과 노인 이출입이 많은 곳 교통사고 예방사업), 실버 급식도우미(초등학교 내 아동 급식지원 도우미) △인력파견형: 실버경비대(경비교육 이수증 취득 후 취업 알선) 등 5개 사업.
- ◆오정구 취업지원센터(☎032-684-1508) = △복지형: 경로당도우미(경로당 내 거동 불편 노인 수발), ?교육형: 한글교실(경로당에 파견돼 한글과 숫자교육) △공익형: 교통지킴이(초등학교 부근 교통지도 및 아동 범죄 예방) △인력파견형: 실버지킴이(경비 및 미화원 취업 알선) 등 4개 사업.
- ◆부천시니어클럽(☎032-668-4107) = △공익형: VVA 6070(불법 부채, 전단지 제거 등 거리환경 개선), 교육형: 숲생태 해설사업(숲생태 해설 및 친환경 교육), 문화해설사업(관내

- 박물관 내 문화 해설 및 안내), 1-3세대 통합교육프로그램(전통예절 및 전통놀이 교육 강사), 징검다리(장애정소년 치료프로그램 교육 및 지원) △복지형: 요보호노인 돌봄사업(일상생활이 불편한 어르신 돌봄), 보육도우미사업(여성노인 소외계층 및 지역아동 돌봄) △공익형: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초등학교 급식 시 배식 및 정리 지원) △시장형: 유니-원 기획(유니폼 판매), 해답은 제과(과자 제조 및 판매), 베이비시터(맞벌이부부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해마루 참두부(두부 제조 및 판매), 행복담은 수레(재활용수거), 은빛다솜일터(공동 작업장), 행복한 밥상(도시락사업), 인력파견형: 다솜수(수) (실버도우미 파견) 등 16개 사업.
- ◆경기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032-683-1389) = △복지형: 노인학대 예방사업(지역사회내 노인학대 관련 캠페인 등 교육).
- ◆부천실버인력뱅크(☎032-668-6070) = △교육형: 노노사회참여지도사업(노(老)-노(老) 상담), 어르신 모티어링사업(노인일자리사업 모티어링) △공익형: 지하철 안전지킴이(지하철 안내도우미), 고객지원단(경기도사업) I CAN(취업 연결) 등 5개 사업.
- ◆부천시 원미노인복지관(☎032-667-0261) = △공익형: 은빛 밥상(초등학교 급식 배식), 은빛 깔깔이(공공기관의 청소업무 지원), 은빛 나무사랑(공공기관의 화단 관리) △교육형: 교육강사(한글, 영어 등 노인교육강사), 동화구연(1?3세대 동화구연 강사), 한문교실(1?3세대 한문교육 강사), 방문학습(거동불편 노인가정 방문 한글 교육 제공), 실버 제조(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조 지도), 실버서포터즈

/부천의 참언론 - 더부천 www.thenucheon.com

# 25년 노하우!

# 100% 수제 맞춤 양복!

부천성모병원(구 성가병원) 사거리 위치  
을지라사 ☎ 032-346-1040

## K MEDIA Communication

영상·음향  
CCTV 설치 & 렌탈  
행사용 영상  
음향장비 대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경기미디어통신  
☎032-614-3342

## 디자인이 소리납니다

독

·카타로그 제작 ·신문집지광고 ·건설분양광고 ·전단지제작 ·C.I.P ·POP  
종합광고회사  
주) 지멘커뮤니케이션 02) 516-4505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0-17 104

## 풍계기든

황도진흙구이, 옷타, 닭도리탕, 닭백숙, 오리백숙, 영양탕, 오리살불고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586번지  
T.032)681-2211 ~ 2

## 공증인가 법무법인 오아시스

대표변호사 조영상

소송 ☎032-325-3115  
공증 ☎032-321-6611

## 내집처럼 편안한 세무상담! 이재욱 세무회계사무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62번지 뉴월드프라자 4층  
T.032)328-5300



◆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부천 30명 '출사표'

원미갑 11명 · 원미을 7명 · 소사구 6명 · 오정구 6명

2월20일 현재 30명... 총선 출마자는 '절반 이하' 부천 4개 선거구에 최소 9명~ 11명 출마 예상

4월11일 실시되는 19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에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

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접수받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후보자 공천 신청을 마감한 관계로 앞으로 예비후보자 추가 등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서영석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오정구 풍향계

16년간 몸담은 민주당 탈당 "서글프다"

'당선후 민당 복당' 슬로건... 표심 공략 4선 도전 원혜영 의원 '대세몰이' 차질 예상

4.11 총선에서 부천 오정구 출마를 위해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4선에 도전하는 원혜영 국회의원과...

다 부천 4개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후보 공천에 따른 역학관계 및 지역 정서 등도 고려해 따른 것으로 보인다.

-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박한진 ◆5급 <전보> △홍보기획관 한창희 △도시디자인과장 안정민 △지방행정연구회 교육 파견(2월14일~12월14일) 허모...

■ 2월20일 현재 부천 4개 선거구별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이래 사진 게재 순서는 가나다순)



△새누리당 유지훈 △새누리당 임해규 △새누리당 최주철 △민주통합당 김경협 △민주통합당 임해규 △민주통합당 박성취 △민주통합당 이상훈



△민주통합당 조용익 △통합진보당 백현종 △무소속 정수천 △무소속 조혜자

원 △조용익(46) 법무법인 정동 대표 변호사. <통합진보당> △백현종(41) (사)나눔과 섬김 이사장. <무소속> △정수천(54) 전 경기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조혜자(46) 전 월드라이프 환경상무.



△새누리당 이사철 △새누리당 최환식 △민주통합당 김진국 △민주통합당 설훈 △민주통합당 송백석 △민주통합당 한병환 △통합진보당 우인회

◆부천시 원미을 <새누리당> △이사철(60) 현 국회의원 △최환식(54) 전 경기도의원. <민주통합당> △김진국(53) 혁신과통합 부천 공동대표 △설훈(59) 전 국회의원 △송백석(47) 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한병환(47) 전 부천시 시민운동부장. <통합진보당> △우인회(61) 전 한국폴리텍대학 김천캠퍼스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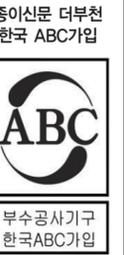


△새누리당 차명진 △민주통합당 김백수 △민주통합당 김명연 △민주통합당 김상희

◆부천시 오정구 <새누리당> △안병도(54) 전 오정당협의회장 △오정섭(53) 전 경기도의원 △홍건표(67) 전 부천시장. <민주통합당> △원혜영(61) 현 국회의원. <국민행복당> △나삼운(57) 전 국민당 부천 청년부장. <무소속> 서영석(54) 전 경기도의원.



△새누리당 안병도 △새누리당 오정섭 △새누리당 홍건표 △민주통합당 원혜영 △국민행복당 나삼운 △무소속 서영석



도시에서 느끼는 시골집 정취

안골 텔레기

텔레기란...?

'텔레기'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향토음식으로 지정했는데, 알고보면 경기도 북쪽 사람들이 즐겨먹던 것입니다. 충청도식으로 말하면 '아주'와 비슷합니다.



메 추어텔레기 / 낙지닭도리탕 / 해물파전 뉴 해물부추전 / 도토리묵 / 한방막걸리



<안골 텔레기 -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전철역 부천역에서 북부역 방향으로 나을 경우) 시내버스 타는 곳에서 원종동 방향 8번, 75번, 606번 타고 여월정수장 정거장에서 하차, 길 건너편 산마루빌에, 동불사 표지판을 보고 따라 오시면 됩니다.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21-2번지 예약문의 ☎ 032-674-4585